

# 화합과 통일의 꽃을 피우다

## 총지중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 나눔과 공감의 장 펼쳐

총지중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가 10월 6일 총지중 종립 부산 동해중 운동장서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부산지역 불자, 총지중 교도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산스님, 수석부회장 화산스님, 부회장 법민스님, 자인스님, 진각종 부산·경남 교구장 효원정사, 진각종 명륜심인당 주교이자 전 통리원장 회정정사, 미륵종 총무원장 승경 스님, 보문종 기획실장 금주 스님, 이진북 국회의원, 조길우 동래구청장, 이병두 문화관광부 종무관, 불교방송 이재원 사장, 부산불교연합회장단 단장 등이 참석했다.

총지중 통리원장 지성정사는 봉행사를 통해 “오늘 음악제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

### 사부대중 2천여 명 참석 '성향'

### 지역 단체에 후원금 전달 '훈훈'

의 대중들에게 따뜻한 법음으로 전해드릴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지중 효강 종령은 법어를 통해 “동생동사, 동고동락의 대진리를 하루 빨리 깨달으시라. 그리하여 모두가 시기와 질투, 아집과 집착의 굴레를 버리고, 상부상조의 손을 맞잡고 서로 도우며 힘차게 정진합시다”라고 서원했다.

종립 동해중학교 총동창회장이자 동래구 국회의원 이진북 의원은 “정통불교종단 총지중의 문화적 역량과 사회통합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자리다. 오늘 이



총지중은 10월 6일 부산 동해중 운동장서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무대를 통해 종립동해중학교가 지역 최고의 명문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며 축하를 전했다.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후원금은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사단법인 단미, 다문화 가정 터미, 새터민 김선희 이송이, 바라밀지역아동센터, 동해중, 평양예술단 등에게 전달됐다. 특히 이주민 문제 가오리씨에게는 총지중 부산 정각사 자비회에서 마련한 후원금이 전달됐다.

이날의 하이라이트인 공연에는 서울 마니합창단,

대구 금강합창단, 부산 만다라합창단, 가야금병창 강세영국악인, 비움 중창단, 관무용단, 평양예술단, 초청 가수 조황조의 무대에 이어 총지중 연합합창단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흥을 더했다.

‘사회화합과 계층 간의 융화의 한마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축제는 천여 발의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막을 내렸다. 총지중은 앞으로 사회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 지사장

## “나라 사랑 정신 잊지 말자”

### 사명대사 추모 대법회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 연합 신도회가 주최하는 사명대사 열반 402주기 추모 대법회가 10월 11일 부산 어린이 대공원내 사명대사 호국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주관했으며 부산시지방무형문화재인 호국영산대제로 봉행됐다. 행사는 이윤희 회장(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의 발원문 낭독에 이어 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산스님의 사명대사 행장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은 “365일 한시라도 사명대사의 업적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잊지 말고 항상 가슴속



402주기 사명대사 추모대법회가 10월 11일 사명대사 호국광장에서 열렸다.

에 간직합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불사 기금에 써 달라”

### 안국선원 범어사에 10억 전달

안국선원 신도회가 범어사에 불사 기금 10억 원을 전달했다. 범어사는 10월10일 경내 주지실에서 범어사 불사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안국선원 신도회는 범어사 불이문 불사를 위해 이번 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불이문을 비롯한 범어사 불사 기금으로 10억 원을 전달하고 차후 나머지 10억 원도 발원 기금 형식으로 보시할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부산거림회 40주년 법회

### 사부대중 300명 참석

부산 거림회는 10월 9일 연산동 부산불교신도회관 6층 법당에서 창립4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증명법사 前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최수환 회장, 공명수 前회장 등과 거림회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종범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산 거사림 불자회가 부산 불교의 중심이라 생각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자. 앞으로 거사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법주사, 원어민 영어 교사 템플스테이

### 10월 13일 80여 명 참석 등 체험

속리산 법주사는 10월 13일 1박2일 충북 교육청 소속 영어 원어민 교사 80여명을 대상으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첫날 우리나라 유일한 국보 목탑 팔상전을 비롯, 대웅전 등 불교 문화재를 관람한 후 숙소 명상과 저녁 예불, 참선 등을 체험했다. 둘째날은 새벽 3시 예불과

108배, 스님과의 차담 등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국장 보란 스님은 “본 과정을 통해 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는 계기가 됐다. 나아가 한국 학생들과 잘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며 템플스테이의 취지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무질서하게 축조한 호안석축은 우리나라 전통사찰의 못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식이다. 경상북도 비사찰에 새로 조성한 못.

## 전통사찰에서 볼 수 없는 연못

사찰의 못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하나는 불교의 상징인 연을 심어 연꽃을 피우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교에서 존송의 대상으로 삼는 탑, 불상 그리고 산의 그림자를 비치기 위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못을 연지(蓮池)라 하고 뒤에서 말한 못은 영지(影池)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사찰의 못은 불교가 도입되면서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불교도입 초기에 지어진 사찰에서 발굴조사된 못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 사찰의 못은 인도나 중국사찰의 못과 양식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사찰의 못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호안석축이다. 호안석축은 대체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자연석을 잘 다듬어 층층이 쌓아올리는 형식을 보인다. 단순한 듯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 보면 돌을 쌓아올리는데 질서가 있고,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여 돌을 조합한 솜씨를 엿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사찰의 못에는 못 주변에 경석을 놓는다는지 못 속에 섬을 만들거나 수석을 심는 경우가 흔치 않다. 이렇게 별다른 수식 없이 못에 담고 싶은 기능성에만 정신을 집중한 것을 보면,

못 자체보다는 못 속에 심어진 연꽃을 중요시하였고, 못물에 비친 불상이나 탑 혹은 산의 그림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주와 객을 분명히 구분하였던 스님들의 지혜와 사물을 통찰하는 혜안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도 여러 사찰에서 못을 파고 그 주변을 장엄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찰에서 만들어 온 못의 양식을 계승하여 아름답고 의미있는 못을 만들어내는 사찰도 있지만 우리네 전통성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못을 만드는 사찰도 많아 실망스럽다. 더구나 풍수적으로 볼 때 못이 있으면 오히려 건강할 환경을 해치게 되는 곳에도 무리하게 못을 파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사찰의 못은 상징적 효과와 경관적 효과는 물론 건강할 환경을 만드는 환경적 효과까지 생각해서 만든 하나의 작품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사찰의 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금 아무리 아름다운 못을 만든다 해도 그것은 사찰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